2023 오병이어선교회 | 통권 6호

5&2 Foundation

풍성함

칼럼

길을 내는 사람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전율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긴장과 두려움을 이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 1994년 5월 몽골 지부의 시작이 그러했다. 전문인 선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인도하심 받은 몽골 선교는 본 선교회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수양 급식이 창업된 후 몽골 파트너의 몽골 기내식 컨설팅사업 제안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는지 몽골 측 파트너의 파산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식품 영양 분야가 전무했던 몽골 땅에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난 29년 동안 우리의 전문성으로 학생식당 급식경영을 기점으로 식품영양학과와 몽골 영양개선 연구소를 세우고, 몽골 초등학교 내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에는 몽골 학교급식법이 몽골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도록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 한 나라의 식생활 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길을 만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귀한 헌신자들이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새길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 걷게 된다.

어느덧 '오병이어선교회'의 나이가 37살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오셨다. 이제 우리는 다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우리를 써 주세요." 기도하던 가난한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 새길을 새 강을 만들어 Yellow Window 땅의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오병이어선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오병이어선교회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윤향숙 선교사 (몽골 지부 지부장,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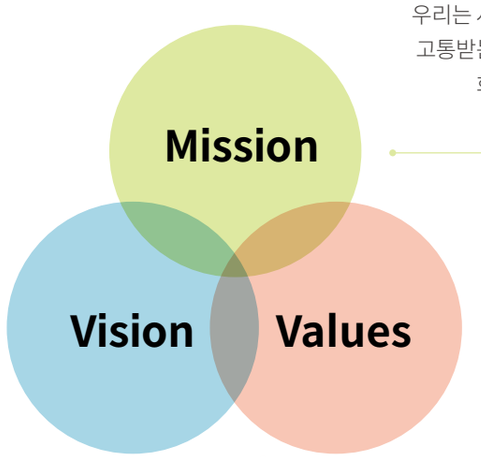
오병이어선교회
Food & Nutrition for Good News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 6:37)

오병이어선교회는 1986년 창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써 선교동원, 훈련,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섬깁니다.



서로의 섬김으로
Yellow Window의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순종 |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에 순종합니다.
공동체 | 우리는 동역하는 공동체입니다.
섬김 |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섬깁니다.
투명성 | 우리는 맡겨진 일에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연합 | 우리는 건강한 변화를 위해 더불어 함께 합니다.

중점전략 Mission Strategy

복음, 제자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유,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합니다.

선교사 양성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현장을 채우는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으로 열방을 섬기도록 합니다.

헌신 및 파송 |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총체적 선교

풍성해

ⓒ calli furaha(손주희)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지 이름으로 연 1회 발간됩니다.

표지 | 박일화 후원자님 재능기부

2023년 통권 6호

발행처 오병이어선교회
발행인 곽미란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기획 및 편집 오병이어선교회

주소 [0399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
(서교동442-5) 수양빌딩
전화 02)322-4630

홈페이지 www.yello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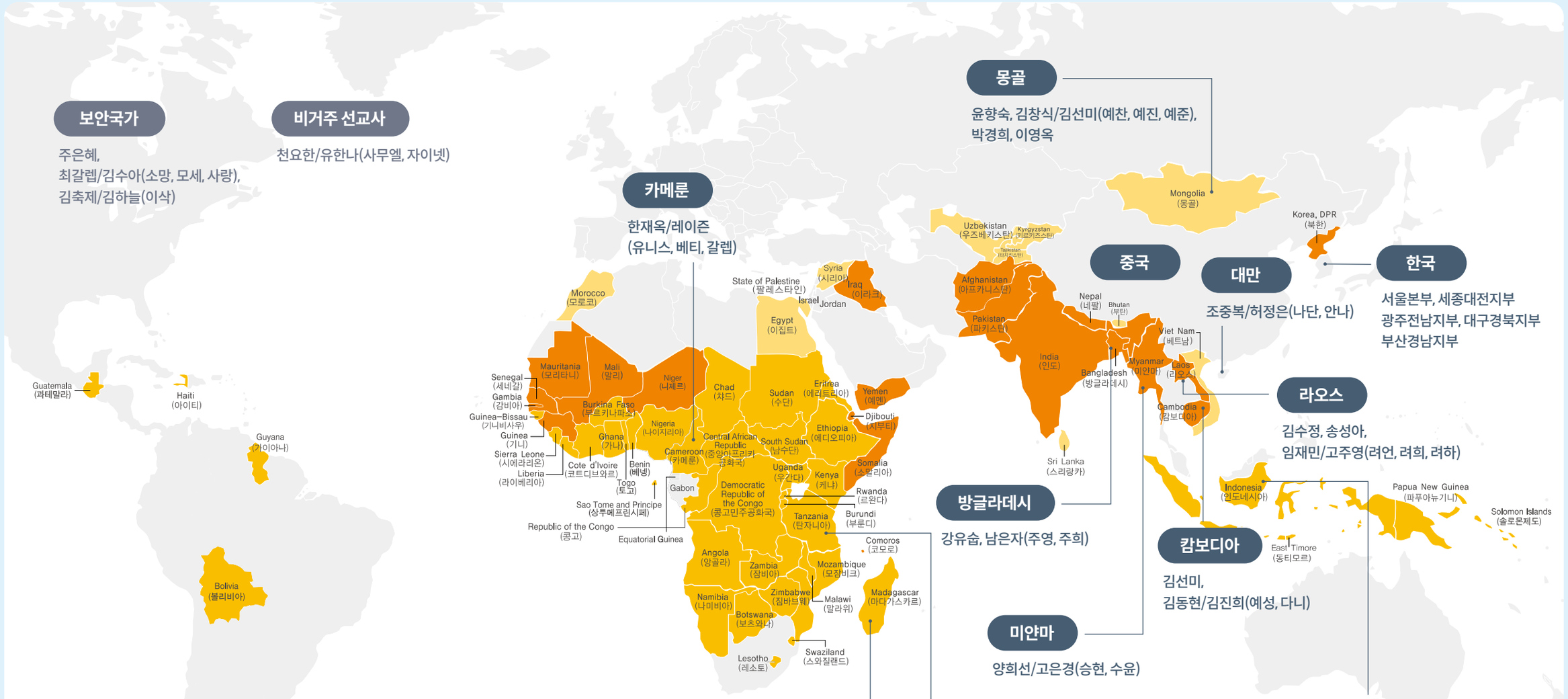
03 칼럼 몽골 윤향숙 선교사
06 선교사 파송 현황
08 선교현장 이야기 1 • 탄자니아 김동희 선교사
10 선교현장 이야기 2 • 몽골 이영옥 선교사
12 선교기획 시리즈 • 강대흥 선교사(KWMA 사무총장)
16 Yellow Window • 알아가기 미얀마
18 Yellow Window 정탐보고 • 미얀마 양희선 선교사
20 해외장학멘토링 • 남비니나(마다가스카르 장학생)
22 WCS 이야기 1 • 마다가스카르 유수진 선교사
24 WCS 이야기 2 • 마다가스카르 장준호 선교사
25 오병이어+People • 허정화 후원자
26 오병이어 Gallery • 박일화 후원자
28 오병이어+News
32 재정보고

섬기는 사람들

(재)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회
이사장 이영남
고 문 이용숙 (창립 초대회장)
감 사 김대형
이 사 곽미란 김재철 오성호 윤향숙 이일영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곽미란
오병이어 해외선교위원 곽미란 김미순 마진영 유수미 이옥
선교/교육 훈련원 이용숙, 주은혜
본부 사무국 김한나(행정/선교) 한상희(홍보/후원자) 최옥선(선교사 지원)

선교사 파송 현황 (2023년 8월 현재)



보안국가

주은혜,
최갈렙/김수아(소망, 모세, 사랑),
김축제/김하늘(이삭)

비거주 선교사

천요한/유한나(사무엘, 자이넷)

카메룬

한재옥/레이즌
(유니스, 베티, 갈렙)

몽골

윤향숙, 김창식/김선미(예찬, 예진, 예준),
박경희, 이영옥

중국

대만

조중복/허정은(나단, 안나)

한국

서울본부, 세종대전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라오스

김수정, 송성아,
임재민/고주영(려언, 려희, 려하)

방글라데시

강유숩, 남은자(주영, 주희)

캄보디아

김선미,
김동현/김진희(예성, 다니)

미얀마

양희선/고은경(승현, 수윤)

탄자니아

김동희, 이용숙, 안정미,
길미정, 고하늘, 이도경
육지은, 김인송/고윤희(새롬, 로이, 라온)

마다가스카르

유수진, 장준호/조시경(윤지, 원준)
김은혜

인도네시아

이용규/최주현
(동연, 서연, 하연, 정연)
김혜정

Yellow Window는 복음의 소외, 굶주림과 가난, 영양불량의 악순환을 끊고, 전인적인 회복을 꿈꾸는 우리 이웃들의 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해결할 긴급한 영양사업을 중심으로 한 최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한 우선중점사업국가

★식량안보, 식수위생, 극빈곤층의 영양문제를 해결할 통합적 중재 사업이 필요한 국가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장기적 개발 사업이 필요한 국가

선교현장 이야기 1 - 탄자니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김동희 선교사 (탄자니아 지부 지부장)

할렐루야! 탄자니아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자니아 지부는 작년 22년 5월부터 23년 2월까지 모로고로시와 음베야시의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반 식생활 교육 실태 조사 및 환경 구축을 위한 리서치를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떻게 리서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할지 정보를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 절차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리서치 설문지 구상회의

그때 마침 연락이 닿았던 분이 바로 마마(기혼인 여성에 대한 존칭. 엄마라는 뜻도 있음) 겔라기스터 였습니다. 21년 후반에 잠깐 방문하였던 탄자니아 식품영양센터인 TFNC에서 만났던 한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리서치를 소개하며, 리서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설명, 설문지 개발과 번역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마 겔라기스터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 수락해 주셨고, 설문 조사지 개발, 모로고로 교육청 교육 담당자 연결, 중앙정부 관계자 소개, SUA(Sokoine University of Agriculture_탄자니아 농업대학 중 1위인 학교)의 식품영양학과 출신 연구원 소개 등등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때마침 2년간 받고자 노력해도 받을 수 없었던 자선단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도움도 받았으며 자선단체 인증서 발급을 시작으로 4년간 받지 못했던 2년짜리 노동 비자와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까지 연결하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았던 SUA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와 연결되어 Human Nutrition 전공자들과 함께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리서치를 시작으로 탄자니아 지부와 함께할 현지 스텝을 찾던 중 10여 년간 카상가초등학교 학교급식을 통해 연결된 학교 선생님의 자녀인 글로리아가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위드 탄자니아 모로고로 지부에 새로운 현지 스텝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모로고로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조사는 리서치 허가기관인 COSTECH(Tanzania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_탄자니아 기술 과학 위원회)에서 지역을 하나 더 추가하여 기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결과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통지를 받고 모로고로와 음베야 두 지역을 리서치하게 되는 놀라움과 감사는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사역 지역을 새롭게 세팅한 음베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권 영양개선 연구소'를 음베야 지역에 세울 꿈을 꾸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20년 중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세워서 지금은 현지에 완전히 이양된 대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그냥 한번 방문해 보자며 아무 사전 연락 없이 가게 되었던 곳이 바로 TEKU(TEophilo Kisanji University)였습니다. 그저 둘러보러 갔던 발걸음이었는데, 그 첫 방문에 대학교 총장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후 추가 방문을 통해 학교의 환대 속에서 우리 기관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 이후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리서치 지역에 음베야도 추가하기 위해 TEKU에 연락하여 우리 리서치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당시 만났던 간호학과 조교수가 현재 자신이 식품영양학 석사과정 코스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 인터뷰어를 선정하여 리서치에 함께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래 준비해 놓으신 서프라이즈 선물을 짜잔! 하고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과 준비하심을 통해 리서치가 더욱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로고로 인터뷰어들과 함께

학교장 설문조사(음베야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포커스 그룹조사

리서치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그 기간들 속에서 섬세하고 세세하게 일하여 주시며 선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에 정말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길어진 허가 기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아진 리서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탄자니아 지부 선교사님들과 본부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진가가 백 배 발휘됨을 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지체들의 연합은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크게 체험할 수 있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23년 한 해 안에 이루어질 리서치 보고회 및 세미나와 이후 이 결과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주신 비전들과 사역들, 무엇보다 새롭게 이어진 만남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탄자니아 제자공동체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깁니다. 앞으로 탄자니아에 이루어 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져 갈 사람들과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옵스의 하나님

이영옥 선교사 (몽골 지부)

저는 겁이 많고 엄살이 심한 편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겁이 많아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기드온처럼(사사기 6:11) 처음 2019년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옵스에 왔을 때 세상에 저 혼자인 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수도에서부터 27시간을 달리는 내내 버스 구석에서 가방을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에 버스에서 내릴 즈음에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습니다.

한국문화의 날 '한국 반찬 만들기'에 참여한 수강생들과 (가운데 이영옥 선교사)

당시 옵스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옵스는 감염병의 확산이 위협적이지 않아 안심하는 분위기였지만 곧 도로들이 폐쇄되었고 감염자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빠른 감염병 확산 소식으로 인해 몽골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출국하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모두 출국한 상황에서 홀로 남아있던 저는 두려워했던 기드온처럼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외부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숨어지내던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내셔서 한국 본부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긴급지원'이라는 구제사업 현장의 담당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을 때 오히려 시골을 돌아다니며 노동청, 보건청, 도청 소재지의 담당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도로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제게는 문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저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옵스 아이막의 여러 지역을 다닐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동역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저의 모교회이자 파송 교회인 영락교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해외 선교 봉사활동을 대신하여 현지에서의 필요를 지원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때마침 '옵스 영원한 사랑교회'의 화장실과 주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던 차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시설 구축이 절실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공사로 교회는 이 지역에서 실내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었고 예배는 물론, 옵스 지역 연합예배와 연합모임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옵스에 한국어 교사 사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학교는 오랫동안 휴교상태였습니다. 학교의 기숙사는 감염환자의 격리시설로 사용되었고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집에서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비자 발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옵스 공항이 폐쇄되어 비행기는 운영계획조차 없었기에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막막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의 확산도 완화되면서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저희에게 올랑곰 칼리지 내 '한국문화관' 개관을 제안해 주시고 한국어 교육 활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많은 후원과 관심 덕분에 2022년 11월에는 '한국문화관'이 개관하였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는 옵스 도청소재지와 올랑곰 행정솜 등이 한국의 다른 기관들과 MOU를 맺게 되면서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올랑곰 칼리지를 방문하면 '한국문화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될 만큼 한국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도 시골 테스솜 유목민 학교의 기숙사 환경 개선 지원과 올랑곰 칼리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에서의 한국어 수업 현장

테리얄링솜 유목민학교 기숙사 학생 침대 및 침구 지원

옵스 영원한 사랑교회 예배

어설프게 보따리를 싸고 옵스에 처음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막막한 마음도 들고 '언제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겁이 많은 제가 생각해내는 오만가지 문제로 만들어낸 큰 산을 타작기로 부숴 순식간에 까부르듯이 날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훈련을 주실지 알 수 없고, 그때가 되어도 저는 처음과 같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려고 또 오만가지 걱정의 산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기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처럼 저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2008년 저를 이 길로 불러주셨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할렐루야! 옵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 흐름과 한국 선교의 미래적 방향

강대흥 선교사 (GMS 순회 선교사, KWMA 사무총장)

1. 들어가며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 속에 선교의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서구 중심(Global North)의 선교 운동이 남반구(Global South) 중심으로 이동 중이다. 이는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Global Christianity) 중심 세력의 지리적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교 중심 세력(Majority World)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서구권 특히 한국 선교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의 선교 환경 변화로는 2006년에 한국 선교의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되었던 'Target 2030'에 대한 회의감과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비서구권 교회의 선교 동원과 관련하여 이들 비서구권(Global South)의 국가들 교회의 파송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글은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만나는 세계 선교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교회와 선교계가 요청하는 선교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에 대해 제안하는 글이다.

2. 세계 선교의 중심 세력 이동

북반구(Global North) 중심의 선교 운동 중심 세력이 남반구(Global South)로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세계 선교는 북반구 선교지도자들의 시각으로 세계 선교를 바라봤다. 윌리암 캐리(William Carey)와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를 통해 시작된 해안선 선교 시대와 내지 선교 시대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의 역사관을 가진 분들의 선교적 시각이라 할 수 있으며,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 '선교'라 생각하는 것 역시 서구 중심의 선교 사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선교란 타 문화권으로의 사역'을 말하였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 교회의 선교 관련자들은 선교를 단순히 '가는 것(마 28:19)', 즉 '지리적 환경'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타 문화권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파송 중단 혹은 소극적 지원을 받아왔고, 심지어는 선교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 후원 중단까지 가는 사태가 있기도 하였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서구 중심의 선교 방식으로 인해 비서구 권의 많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교회와 미션 스쿨, 선교병원까지도 세워졌다. 지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런 서구 중심의 선교[1]가 코로나 이전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쳐 왔었다. 일반적으로 서구 중심의 선교 방식은 선교사가 다른 나라로 파송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와 선교 재정이 같이 갔다.[2] 이런 방식으로 서구 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는 비서구 국가(미션 필드)로 파송되면서 학교, 병원 그리고 다양한 목적의 센터와 교회를 선교목적으로 건축하였다.

2.1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 세력은 비서구에 있다.

비서구는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대륙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이고, 비서구권의 기독교인 수는 서구권 기독교인의 2.7배이다. 다시 말해 예전의 선교지였던 나라(Mission Field)들이 이제 기독교의 주류(Majority World)가 된 것이고 선교사 파송 국가(Mission Force)가 된 것이다. 또한, 서구권에서는 선교사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비서구권의 교회 안에서 선교사 후보들을 동원하고 있기도 하다.[3] 그러나 대부분의 비서구권[4]은 가난한 나라들이기에 이들 비서구권 출신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갈 때 그동안 서구권 선교사들이 하였던 선교 형태(교회 개척, 건축, 센터 사역 등)의 모델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 비서구권 중심의 선교에 생각하는 점들

한국 교회가 비서구(Global South)권의 교회와 더불어 선교 전략을 논의할 때에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중국의 'MC2030'[5], 그리고 남미의 코미방, 아프리카와 동남아 교회들의 선교사 파송 정책과 교회들의 역할이다. 이 중에서 중국과 남미 교회와 관련하여 약술하겠다.

2.2 중국의 선교 운동

중국은 MC 2030을 기본으로 2030년까지 2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는 2,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데 이들 중 80% 이상은 첫 번째 기간을 완성하지 못하고 귀국하고 있다. 중국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연 문화적인 적응이 부족하고 타 문화권 안에서 거주하면서 사역한 경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횃불 신학교(Torch Trinity Theological Seminary)의 강창섭 교수는 '화교 교회도 중국 본토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들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중국 선교사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현지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외 선교계는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첫째, 중국 선교사 멘토링 사역이 있다. 결국, 중국 선교사들의 장기 사역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장기 선교사를 멘토링 하는 것이다. 중국교회 선교사들과 경험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멘토링을 통해 그들의 현지 적응과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현지에서의 중국 선교사들과의 협력 사역이다. 선교 현장에는 이미 서구, 한국, 중국 선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구와 한국 선교사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선교 전략들이 중국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면 중국 선교의 발전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 선교사가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중국인의 출입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중국 자본이 아프리카로 동남아, 서남아로 나갔고 중국인들을 받아드렸다. 동남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제치고 중국어가 우선이었다. 중국 여권이면 이슬람 국가도, 불교 국가도 쉽게 들어가고, 최근에는 미얀마가 국내 분쟁 관련하여 중국의 중재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의 교회가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교회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1951년 중국의 공산화로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를 중심으로 당시 중국 거주 선교사들은 부득이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10년간 계속되는 문화혁명(1966-1976)으로 인해 2,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죽었다. 그 후에 중국교회는 서구적 요소가 배제된 자생적 현지화된 교회로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영성과 모습을 가지고 성장해왔다. 한편 향후 중국교회 선교사들이 서구의 도움으로 선교를 발전해 나아간다면 장래 중국교회의 선교 운동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서구교회와 서구 선교는 지금 쇠퇴하고 있고, 한국 교회와 선교 역시 쇠퇴하고

1) Christendom Mission 이라 속칭한다.

2) 필자가 경험한 한국과 태국은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 병원,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들은 Mission Station을 만들었다.

3)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의 GMP(Global Missionary Partner) 제도, OM의 비서구권 선교사 후보 장학금 지원 등

4)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말함

5) Mission China 2030

있기 때문이다. 중국교회가 서구교회 혹은 한국 교회를 본받는다면 그들의 앞날은 지금의 서구교회나 한국 교회의 현실과 같을 것이라는 가정교회 리더들의 생각을 들었다. 중국교회 리더들의 생각은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 중국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6] 중국 가정교회 리더십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교회의 비서구적 독립적 자생성이 MC 2030 중국선교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굳혀가는 것 같다.

2.3 남미의 선교 운동

원래 중남미는 천주교 일색이었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개신교회의 부흥이 가시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2030년이 되면 남미가 세계 최대의 기독교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서구에서 볼 때 가톨릭 국가로 이미 복음화된 지역으로 이해되었고, 한국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미주 교회 혹은 교포들이 선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22개 나라와 포르투갈, 스페인을 합한 24개 나라가 공동으로 선교하자는 선교협의회이고 동시에 이들이 펼치는 선교 운동 역시 코미밤(COMIBAM)이라 한다. 코미밤은 자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Mission Force)라 선포하였다. 1987년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하는 모임 1차 대회에서는 3,000명의 중남미 각국에서 선교 관련 리더들이 참석하였고, 이후 1990년까지 60개 단체에서 1,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997년 제2차 선교대회(아카풀코, 멕시코)에서는 400개 단체를 통해 3,38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7] 2022년에 발표한 코미밤의 자료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에는 50만 개의 교회가 있고, 3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그중 40%는 남미 안에서 다른 종족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60%(20,000명)의 선교사들이 남미 밖의 다른 대륙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약 4,000명에 이르고 있다.

| 미국의 라틴 교회들

구글의 통계는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계 인구를 약 6,200만 이상으로 보며, 그중 개신교 인구는 약 15%로 대략 1,000만에 가깝다고 한다. 이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는 적지만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본다면 라티노 선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틴계 선교사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점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파송을 받았기에 선교지에서 약자를 위한 사역을 한다.**
2. **중남미 라티노는 다문화·다민족 가운데 지내와서 타 문화권 선교 문화적응이 빠르다.**
3. **순수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두려움이 없다.**
4. **오순절 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단점

1. **약자로서의 사역은 때로 사역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
2. **자존감이 약하며, 인성에 상처가 많다.**
3. **대부분이 평신도들이라 신학이 약하고 선교 훈련 부재로 성경과 신앙 지식이 약하다.**

라틴 교회와 중국교회의 디아스포라 동역 사역이 요구된다. 중남미로 이주한 디아스포라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다. 중국인 이주 역사는 1600년대부터 시작인데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8]

6) EAR(East Asia Round) Table에서 나온 말 일시: 2023년 3월 23-24일, Ambassador Hotel, Seoul

7) 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이다.

8) 페루에 200만명을 포함하여 중남미 전체에는 500만명에 이른다.

라틴 교회는 비서구교회로서 앞으로의 선교는 비서구(Global South) 교회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서구(Global North)에서 선교사 후보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선교는 남미를 중심으로 한 비서구교회들의 약진이 기대된다.

2.4 동남아시아의 선교 운동

가장 선교적 열심히 적은 지역이 동남아시아(South East Asia)이다. 서구교회의 영향을 받아 교회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소극적이고, 필리핀만 유일하게 해외에서 직업을 갖는 기독교인이 많은 관계로 많은 평신도가 선교지에 가 있다.

선교의 본질은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다. 로잔 운동이 서구 선교 중심이었던 것에 반하여 비서구권 지도자들의 모임이 필요해서 시작된 'Asia Gathering 2020'은 코로나로 인해 2년이 늦추어지면서, 2022년 10월 17-21일까지 태국의 나콘나욕(Nakhon Nayok)에서 'Asia Gathering 2022'로 모였다. 아시아 각 나라에서 온 선교 리더십 약 650명과 이 대회를 주관한 David Ro[9]와 아시아권 각 나라의 리더십은 '비서구권에서 일어나는 선교 운동이 새로운 선교 운동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서구 선교지도자들도 참석했지만, 그들에게는 '인사말'을 하는 순서 외에 다른 순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독교 확산과 더불어 서구교회에서 선교사 후보가 나오지 않은 현상들은 결국 서구 중심의 기존 선교 스타일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는 북반구에 있던 서구 단체의 본부가 비서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단체의 리더들이 비서구권 출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SIM(나이지리아), OMF(싱가포르), CEF(한국), WEC(한국), CWM(한국), Inter-serve(인도), 로잔(한국) 등으로 국제 선교단체의 리더십들이 비서구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 선교 포럼 등에서 서구는 비서구 출신 강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비서구권 출신의 리더들은 국제 선교단체와 기관들의 운영 방식까지도 변화를 가져왔다. 선교 개념에도 'New Normal'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9) David Ro : 'Asia Gathering 2022' 대회 의장, 로잔 운동의 동아시아 지역 총무

3. 이런 시대적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이 서구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서구 선교 사역 모델들과 노하우를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서구권 교회(아시아, 남미와 아프리카)와 더불어 그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교 모델을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내려졌다. 서구 선교계와 한국 교회 선교는 비서구교회에서 선교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비서구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좋은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강한 선교 동역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2023년은 한국 선교계의 아주 중요한 해로 지금까지의 선교에 대한 통찰과 반성을 기반으로 미래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선교 시대는 전 시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 시대의 역할이 없다면 그다음 세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안선 시대가 있었기에 내지 선교 시대가 있을 수 있었고, 내지 선교 시대가 있었기에 미전도 종족선교 시대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의 선교는 어떤 모습일까? 서구 선교의 헌신을 존중하지만, 기독교와 선교의 흐름과 방법의 변화(Shift)는 서구(Western Mission)에서 비서구(Global South)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니 이미 이동하였다. 비서구 선교사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세계 선교 흐름의 중심 방향이 변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서구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서구교회와 더불어 새로운 선교 운동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결정만 남았다.

Yellow Window 알아가기

MYANMAR

- 미얀마 -

양곤 시가지 중앙에 있는 술래파고다

국명 | 미얀마 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독립 |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수도 | 네피도(Nay Pyi Taw)

면적 | 676,578㎢ (한반도의 약 3배, 국토 66%가 산림지대)

인구 | 5,797만 명 (CIA 2023년 추정치)

행정구역 | 7개 주(regions), 7개 주(states), 1개의 연방 구역(union territory)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에 위치, 남쪽으로 안다만해, 남서쪽으로 벵갈만을 접하고 동쪽으로 태국과 라오스,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접경

언어 | 미얀마어(공용어)

종족 | 버마(Burman)족 68%, 카렌(Karen) 7%, 샨(Shan) 9%, 몬(Mon) 2%, 라카인(Rakhine) 4%, 중국계 3%, 인도계 2%, 기타 5%, 정부가 135개의 원주민 그룹을 인정 (CIA)

정치 | 대통령중심제, 3권분립 및 군부의 독자적 지위

경제 | GDP per capita, PPP $4,430.2 (World Bank 2021)

종교 | 불교 87.9%, 기독교 6.2%, 이슬람교 4.3%, 애니미즘 0.8%, 힌두교 0.5%, 기타 0.2%, 무종교 0.1% (CIA 2014 추정)

교육 |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졸업률: 95% (World Bank 2018)
15세 이상 문해율: 89.1%(남 92.4%, 여 86.3%) (CIA 2019)

보건영양

기대수명: 70.2세 (172위/227개국) (CIA 2023 추정)

출생율: 인구 1,000명당 16.0명 출생 (100위/228개국) (CIA 2023 추정)

모성사망률: 100,000명 출생당 179명 (50위/186개국) (CIA 2020 추정)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42.1% (Global Nutrition Report 2019)

저체중아 출산율: 12.3% (Global Nutrition Report 2015)

전적인 모유수유율: 51.2% (Global Nutrition Report 2016)

5세 미만 아동의 영양불량: 성장부진(stunting) 26.7%, 소모증(wasting) 6.7%, 과체중(overweight) 0.8% (Global Nutrition Report 2018)

5-19세 청소년의 영양불량: 저체중(남 14.9%, 여 10.7%), 과체중(남 16.4%, 여 11.7%), 비만(남 6.7%, 여 3.0%) (Global Nutrition Report 2019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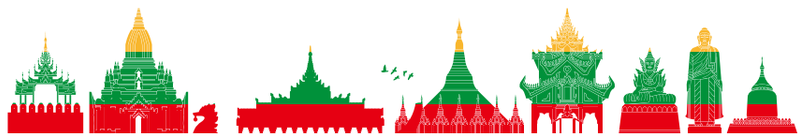
18세 이상 성인의 영양불량: 저체중(남 13.6%, 여 13.2%), 과체중(남 23.6%, 여 30.1%), 비만(남 5.3%, 여 9.0%) (Global Nutrition Report 2019 추정)

18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남 25.3%, 여 24.7%(Global Nutrition Report 2019 추정)

18세 이상 성인의 당뇨 유병률: 남 8.3%, 여 9.1% (Global Nutrition Report 2019 추정)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는 비율: 85.3%(도시 95.4%, 시골 80.7%) (CIA 2020)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율: 전체 85.2%(도시 93.9%, 시골 81.3%) (CIA 2020)



기도 제목 • • •

1. 2021년 2월 군부에 의한 쿠데타 발생 이후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 속에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교를 떠났고 글로벌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높은 물가 상승에 일자리도 사라져 매우 힘든 상황에서 고통받는 미얀마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2. 가장 암울한 지금의 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고 있는데, 참 소망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미얀마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Yellow Window 알아가기

<미얀마 좋은 밭 센터 이야기>

“여전한 혼란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

양희선 선교사 (미얀마 지부 지부장)

양희선·고은경 선교사 가정은 2008년 미얀마 구제 및 복음 사역과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에 파송을 받아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이후 복음 사역, 보건/영양개선 사역, 미얀마 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음료 분야 직업훈련학교 사업 및 베이커리 카페 운영 등의 진행을 통해 미얀마의 회복과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기를 바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쓴 글(풍성해 통권 3호 선교현장 이야기_ 미얀마 편)에는 2015년에 건축한 교회 건물의 시작과 건축 과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 소개했었다. 그 글의 마지막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교회 나오는 아이 중에서 세례 교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역자가 결혼을 해서 더 안정적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썼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지난 2022년 3월에 아따웅 전도사가 같은 학교 출신 사이몬과 결혼을 하여 이 중 한 가지 바람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이 결혼할 거란 이야기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이 연기되어 결국 우리 부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 미얀마의 문화 특성상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싱글 여성으로서 원하지 않게 받는 오해(?)도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사역에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과 유치원을 분리하고 사역자 숙소를 건축해야 했다. 땅을 위해 기도하던 중 2021년 10월쯤 교회 옆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많은 분의 후원으로 2022년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유치원과 사역자 숙소를 건축하게 되었다. 현재 유치원은 군부 쿠데타 이후 유치원 교육보다 거의 탁아소 돌봄 수준으로 맞벌이로 바쁜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있다.

신축 유치원 전경

유치원 및 교회 전경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여러 상황은 과거로 돌아갔다. 특별히 경제적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빈곤층이 2배로 증가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좋은밭 센터가 있는 마을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이들까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렸다. 교회 아이들, 특히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아이들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 사역을 통해 그중 몇 명의 아이들을 고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아직 열악한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진행했던 방과후 학교는 군부에 대한 불신과 돈벌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많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어와 기타를 가르치는 특별활동을 시작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쿠데타 이후, 주일학교 예배에 평균 100~180명의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고 어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에서 쌀과 기름을 몇 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쌀과 생필품을 나눠 주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 아마도 올해로 만 7년이 되는 좋은밭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마을에서 꾸준한 섬김 활동을 통해 신뢰가 형성된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직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열 명이 안 되는 적은 숫자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따웅 전도사와 함께 기도하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교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볼 때, 이분들이 지금은 우연히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미얀마는 아직도 비상사태이며 군부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 민족통합정부(NUG)와 군부의 대립, 대도시를 제외한 반군들의 활동과 그들에 대한 군부의 ‘초토화 작전’ 등으로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다. 어려운 지금의 때에 좋은밭센터가 미얀마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은다.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예배

꿈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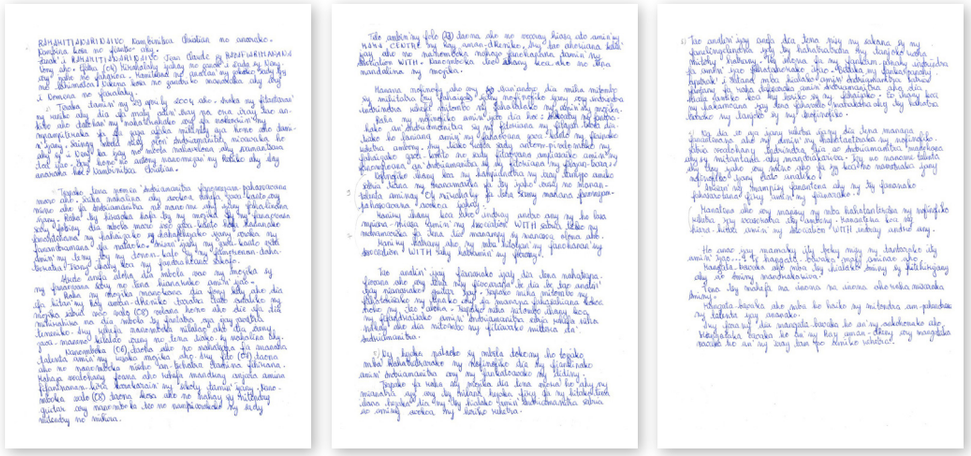
남비니나 (마다가스카르 지부 장학멘토링 학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RAMAMITIANARIVO NAMBININTSOA CHRISTIAN'이고 보통 저를 'Nambinina(남비니나)'라고 부릅니다. 저는 4명의 남자 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 올해 19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2016년부터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 마마 센터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저는 태어나기 한 시간 전에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였고 조산사는 제가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저와 저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Nambinintsoa Christian'이라는 이름을 제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술에 대한 은사를 주셨는데 현재 배우고 있는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시, 작문, 연설과 같은 글로 표현하는 예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생후 8개월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7살 때부터 학교 노래 경연대회에서는 늘 1등을 해왔고 8살에는 기타도 연주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2018년부터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 해외장학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아 'AMI 음악 학교'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를 연주하는 방식과 기타를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실력이 향상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꿈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많은 유혹을 통해서 방해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저를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저의 목표와 꿈을 이루어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비니나 학생의 친필 수기

기타 연주 중인 남비니나

멘토링 중인 남비니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유수진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지부)

지난 2022년 10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된 41기 Gold WCS는 Yellow Window 공동체 사역현장에서 이미 헌신하여 섬기고 있는 오병이어선교회 싱글 여성 장기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영성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4주 동안은 경남 산청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에서 저를 포함한 여섯 명의 훈련생들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삼하 22:30).'라는 주제 말씀을 붙들고 각자 선교지 또는 본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성벽과도 같이 넘지 못했던 한계들(하나님을 향한 신뢰, 헌신, 동역자들과의 소통, 관계 등)을 다시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6).'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지체 안에 있는 부족하고 수용하기 힘든 부분까지 견디어 내며 그가 행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와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Gold WCS 기간에 지리산과 하동으로 소풍을 다녀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의 빨간색 노란색 갈색 등 참으로 다양한 색깔들,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금방 저의 눈에 띈 그 색깔의 화려함 사이에 숨어있는, 마른 잎들이 달려 초라해 보이는 나무들,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모습도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온 땅과 하늘, 바다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만물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크고 넓고 높고 깊음을 묵상하며 저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가 사람 안에도 펼쳐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수진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각 사람 안에 펼쳐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에 흘러가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종으로 살아가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 Gold WCS를 통해 기대와 소망으로 저를 다시 만지시고 새롭게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동역자로 함께 섬기도록 불러주신 지체들과 건강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여전히 한 영혼도 품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으로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가고 계시는데 저의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길가에 심긴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듯이 지체들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답게 펼쳐져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아 지체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축복의 시간

Gold WCS 후반 4주 동안은 지체들과의 여행을 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섬김을 통한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제주도, 여수, 남해, 부산, 경주, 대전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국의 아름답고 멋진 풍경들을 마음껏 감상하고 각 지역의 산해진미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광주에서 호남신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지난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이국땅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신 서양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고신선교센터에서 보낸 Gold WCS 마지막 날, 장기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한 싱글 여성 선교사님의 은퇴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룬 많은 사역의 열매 앞에 선교사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41기 Gold WCS를 통해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Gold라고 불러주시고 빛나고 아름다운 Gold의 가치와 존귀함으로 저희를 환대해주시고 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Gold로,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Gold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시고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저희를 내어드리며 부르신 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오병이어선교재단 김재철 이사 사업장(선진엔텍 씨멘스센터) 방문 기념 촬영

WCS(전인공동체학교)와 함께한 20년, 2003-2023

장준호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지부)

2023년 5월, WCS 42기 강의를 위해 탄자니아 고원지대의 도시 음베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훈련 중인 청춘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 20년 전 내 모습을 보는 듯해서다.

나는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인공동체학교(WCS) 12기 훈련을 강원도 홍천, 몽골에서 받고 평생 선교사로 살기로 했다. 그해 몽골에서 성경 통독을 하다 디모데후서 2:2-4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 전장의 지휘관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관의 소명이 생겼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음베야 숙소에서 짐을 푸는데 문득 영화 탑건 2의 주인공인 '메버릭(Maverick)'이 떠올랐다. 덕분에 치열한 훈련장 가운데서 20년 전 내게 주신 미션과 나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2004년에 열린 최초의 글로벌 훈련학교(13기, 2004)에서 4명의 몽골인과 4명의 한국인이 연합하여 게르(몽골전통가옥)에서 영적인 씨름했던 일들, 2008년 첫 훈련학교 팀장(17기, 2008)으로 보낸 양평 셀라 하우스, 2007년 부부사역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중국 곤명 아파트에서 보낸 DUO WCS(18기, 2008) 등 많은 훈련에 참여하였고 2011년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로 사역지를 옮겨서도 다양한 WCS 현장에서 섬길 수 있었다. 이렇듯 내게 사역자로 가장 즐거운 순간을 꼽으라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주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 사명자로 세우는 일이었다. 헌신자를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자책하기도 했고 때로는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 되어야 했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기쁨은 더 비할 수 없었다. 주와 함께하는 동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오병이어의 WCS의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다.

부르심: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갈망: 타는 목마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몸부림
음성: 나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
세계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지정의(知情意)를 통과하라!: 앎, 느낌 그리고 의지를 통합하는 순간들
정리: 과거 나를 얽매이던 죄, 상처 정리와 새 출발
충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
위탁: 홀로 하나님께, 더불어 공동체에 자신을 드림
공동체: 혼자 있는 삶에서 '더불어 함께'의 삶을 경험함

존 화이트(John White)가 『헌신의 기쁨』에서 쓴 것처럼 "헌신의 기쁨은 우리가 그토록 뒤쫓는 만족감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헌신은 우리가 본래 해야 할 그리고 본래 하게 되어있던 일을 하는 것이다."
20년 후,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시작하며 나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되새긴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 이들 또한 예수의 제자로,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정예 전투원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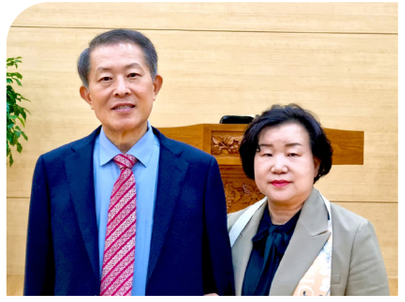
내가 만난 오병이어

허정화 후원자 (예섬교회 심방 목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사모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던 중 신학을 준비 중이던 남편(박종현 목사)을 만나 1987년에 결혼하였습니다. 1986년 창립된 오병이어선교회는 저의 결혼생활과 연륜이 비슷합니다. 그 당시 선교회는 서울시 내 결식아동들을 위해 복음 도시락을 만들며 오병이어선교회를 모체로 한 ㈜수양급식(현 (주)수양에프엔지) 창업을 위해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몽골선교 비즈니스 사역을 기점으로 총체적 선교의 길이 열리던 즈음 고춧가루, 배추 사업 등을 하면서 재정을 마련하던 초창기 때 저도 고춧가루를 팔면서 동역하는 기회를 얻으며 나름 재미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제주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선교회는 사당동에 있었는데 간사님들을 위해 2층 사무실 공간 한쪽에 마련되어 있던 방을 우리 가족에게 내어주신 덕분에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용숙 회장님과 몇몇 간사님들은 지하에 공간을 얻어 나무판자로 방을 만들어 살게 되셨는데도 늘 웃는 얼굴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간을 선교회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함께 복음 도시락을 만들며, 심방과 기도 사역 등을 하며 보람 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열어주신 사역지(서울고척교회)를 따라 이사를 하고 서울 밀알학교 초대 영양사로 부름을 받아 근무하면서도 공동체와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현 사역지 '예섬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부름을 받아 김포에 살게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회장님과 선교회 많은 회원이 병원으로 달려오셔서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거의 하반신 마비가 될 뻔한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정말 감사한 일은 사당동 시절 복음 도시락을 준비할 때 임신 중이었던 작은아들이 오병이어 공동체에서 인턴 간사로 섬기게 되고 42기 WCS(전인공동체학교) 훈련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선교회를 통해 설립하시는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박종현 목사와 허정화 목사 부부

지금까지 인도하신 공동체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Yellow Window 지역과 영역 회복을 위하는 일에 계속해서 한 분깃으로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쓰임 받기 원하며 모이기를 힘썼던 오병이어 회원들과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면을 빌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모인 오병이어선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드림백

글·그림 | **박일화 후원자**

오병이어

박일화 후원자님은 지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병이어선교회에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해 주신 동역자이시며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그림으로 '풍성해'의 표지를 장식해 주고 계십니다. 본 글은 후원자께서 지구촌 어린이에게 꿈을 선물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드림백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며 작성하신 수기(2021.6.26 작성)를 발췌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마음이 향하는 대로 드림백을 몇 장씩 색칠하고 있다. 오병이어 공동체에서 선교용으로 만든 것인데 나는 자원봉사자로 이것을 색칠하는 동안에 은혜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백을 선물 받는 자들이 백과 더불어 그들의 꿈이 그 백 속에서 자라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

드림백 뒷면에는 'WITH'가 그려져 있다. '함께하다'는 뜻의 WITH는 너와 나와 함께,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즐겁고 힘이 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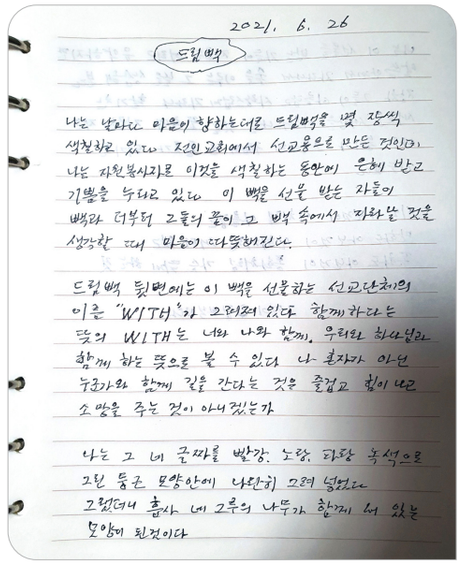
나는 그 네 글자를 빨강, 노랑, 파랑, 녹색으로 그린 둥근 모양 안에 나란히 그려 넣었다. 그랬더니 흡사 네 그루의 나무가 함께 서 있는 모양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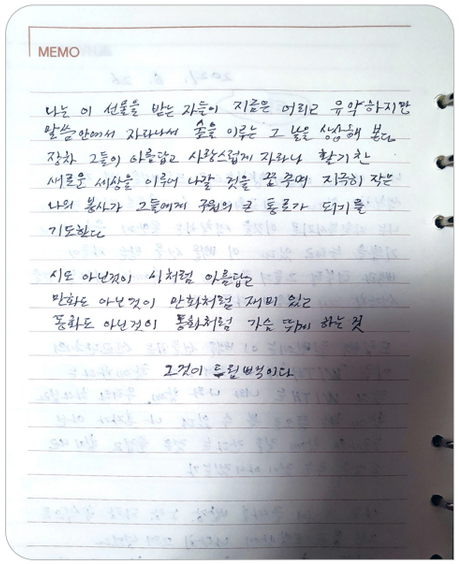
나는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이 지금은 어리고 유약하지만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숲을 이루는 그날을 상상해본다. 장차 그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자라나 활기찬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것을 꿈꾸며 지극히 작은 나의 봉사가 그들에게 구원의 큰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시도 아닌 것이 시처럼 아름답고 만화도 아닌 것이 만화처럼 재미있고 동화도 아닌 것이 동화처럼 가슴 뛰게 하는 것 . 그것이 드림백이다.

드림백을 들고, 박일화 후원자

색색깔로 꾸며진 드림백





박일화 후원자의 수기 노트

국내소식 및 광고 ▶▶▶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WCS 전인공동체학교 (41기, 42기)

2022년 10월 22일~12월 15일까지 경남 산청 민들레공동체 수양관과 제주 등에서 싱글 장기 사역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6명의 훈련생이 참여한 41기 GOLD WCS가 진행되었다. 또한, 2023년 4월 7일~6월 9일까지 탄자니아 음베야에서 6명의 훈련생이 참여한 42기 WCS가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공동체와 동역을 원하는 훈련생들을 위한 43기 WCS가 2023년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교사 파송

2023년 1월 19일 육지은 선교사는 5년간의 국내 본부 사역을 마치고 탄자니아로 파송 받았으며, 2023년 2월 23일 김인송, 고윤희(새롬, 로이, 라온) 선교사 가정이 10년간의 국내 본부 사역을 마치고 탄자니아로 파송 받았다. 파송 받은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이 새롭게 부르신 땅에서 잘 정착하여 계속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북한영양급식위원회모임 발족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활동을 위한 준비모임으로 「북한영양급식위원회」가 2023년 2월 18일 발족되어 첫 모임 이후 월 1회(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7시) 온라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급식 영양교사들과 함께 시작된 모임은 북한을 이해하고 배워가며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필요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사역 진행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필요와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의 멘토링 사역이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여명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재학생 7명과 졸업생 4명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추가로 하나교회 출석하고 있는 2명의 학생에게 생활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실제적인 멘토링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기독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개최

2023년 7월 1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한반도,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메시지(오성훈 목사/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와 북한의 식량 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백명숙 박사/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식량 위기와 고통받는 북한 영양(김지혜 영양교사/경기부천부곡초등학교)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반도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식품영양전문인으로서의 북한 영양에 대한 소명과 분깃을 확인하고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모임(52 pray on)

공동체를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모임인 52 pray on은 국내외 오병이어 가족들을 중심으로 2022년 5월부터 시작되어 격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월 본부, 7월 라오스 지부, 9월 마다가스카르 지부, 11월 본부, 2023년 3월 몽골 지부 5월, 캄보디아 지부 인도로 진행되었다.

오병이어선교회 36주년 감사예배

2022년 8월 25일(목) 오후 7시 오병이어선교회 36주년 감사예배를 올려드렸다. 36년 동안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오병이어 모든 가족이 부르심의 역사를 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청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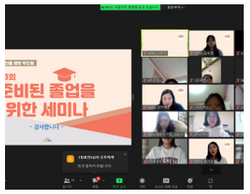
2023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급변하는 선교환경_'뉴노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참여하여, 최근 선교 동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마나욧 Yellow Window 기도 모임

위드 영양개선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마나욧 Yellow Window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2022년 8월 솔로몬제도, 10월 파푸아뉴기니, 11월 볼리비아, 2023년 1월 가이아나, 3월 과테말라, 5월 아이티 이후 계속해서 8월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하며 Yellow Window 땅과 영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Yellow Window의 고통과 상황을 보건영양, 지역, 복음 등의 총체적 관점으로 찾아보고 연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대하며, 그 나라의 변화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가 계속 확대되어 Yellow Window의 건강한 변화의 물결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한다.

23회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

위드 국내사업팀에서 진행한 '23회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가 2022년 10월 29일(토)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어 전국 각지에서 식품영양 관련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04명이 참여하였다. 세미나는 '식품 영양전문인의 진로와 전망', 'FS 사업의 Next Round'라는 2개의 주제 강의와 '임상 영양', '식품개발', '사회적 기업', '보건소'라는 4개의 선택 강의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졸업을 준비하면서 갖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식품 영양전문인으로서의 방향 제시와 성장을 위해 실제적인 졸업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국제영양활동가 교육과정

전문인양성 교육과정 중 하나로 위드 국내사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영양활동가 교육과정이 지역사회 보건영양 활동에 대해 배우고, 현지 식품을 이용한 보건영양 개선 활동을 기획·실습·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33기에 2022년 10월 22일~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어 12명이 수료하였고, 34기는 2023년 3월 25일~4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어 참가자 22명 중 20명이 수료하였다.

정기모임

YW 연합예배 모임 | 오병이어선교회, 위드, 위드 영양개선연구소와 함께 Yellow Window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임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7시)

북한 중보기도 모임 |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를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IFNee(International Food & Nutrition) 아이쁜이 캠퍼스 모임 | 국제개발, 보건영양,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스터디, 식문화 체험, 예배 등 캠퍼스 모임
(매년 학기 중)

직장부 모임 | 기독교 식품 영양 관련 직장인들의 모임
(매월 첫째 주 오후 8시)

지부 모임 |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지부 정기 모임 (매월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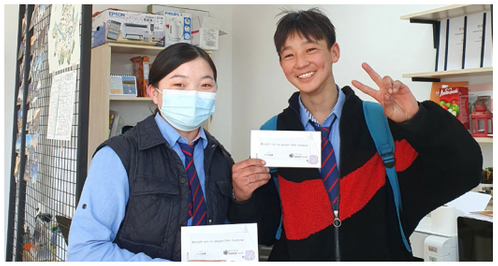
해외소식 및 광고 ▶▶▶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몽골

몽골 옵스 지역 학교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몽골 옵스 지역에 100주년 기념교회의 후원으로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유목민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옵스 테리 얄링솜 기숙사 학생 20명의 숙소 침대 프레임과 침구를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고, 테스솜 기숙사 학생 90명에게 위생용품 및 과일 지급하고 있으며 1년간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올랑곰칼리지 취약계층(편부모) 소년소녀가장인 학생 20명의 2023년 년간 교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몽골 옵스 영원한 사랑교회의 난방비를 포함한 사역비와 현지 사역자 가정의 재정적 필요를 지원하며 교회의 자립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다.



몽골 선교 30주년 준비모임 진행(몽골지부, 한국본부)

몽골 옵스와 울란바타르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교회 사역과 전문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몽골지부에서는 본부와 함께 2023년 4월부터 월 1회(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8시) 지난 30년의 모골 선교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선교역사를 바라보고 기념하는 2024년 6월에 있게 될 몽골 선교 30주년 준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동역자들과 예배를 다시 세워 감

소망의 새 빛 교회는 2023년 1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예배가 중단되었던 어려운 시기를 거친 후 교회 예배를 지켜온 청년들과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과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미얀마

중퇴 청소년들을 향한 꿈, 수양 베이커리 & 트레이닝센터 시작

2022년 10월에 시작된 수양 베이커리 & 트레이닝센터를 통해 중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기숙사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중퇴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공간으로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는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좋은밭 센터 증축 공사 감사

2022년 11월 말 좋은밭 센터의 유치원과 사역자 숙소 공간이 새롭게 마련하는 건축공사를 하였다. 새롭게 건축된 유치원은 주일 예배와 성경공부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새롭게 만나게 된 아낙달람 종족

2023년 2월 27일~3월 7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낙달람 종족 정착촌을 방문하여 식생활 영양개선 조사 참여(NIS)와 해외장학멘토링 학생 14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진행되었고, 자카르타의 JIU를 방문하여 학생식당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마다가스카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청년·대학생까지 폭넓어진 교육 사역 진행 중

마다가스카르 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마마센터를 통해 마마기도회, 키즈, 틴스 클럽을 통해 어머니의 기도와 자립을 지원하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역을 하고 있고, 비나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 사역 모델인 '저마다의 꿈마다'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 7월부터는 안타나나리보 대학가 근처에 나니아 센터를 오픈하여 청년·대학생 사역을 시작하였다. 2023년 4월부터는 영어 성경이 보급되어 청년들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성경 66권 완독을 목표로 하는 '영어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다.

돌봄과 필요를 채워가는 나눔

마마센터의 청년에게 치과 치료비 및 영양 보충을 위한 식품 패키지와 함께 지원하는 돌봄 사역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후원자의 손길로 채워진 새 운동화와 문구류 등이 컨테이너를 통해 현지로 보내져 나눔이 이루어졌다.

탄자니아

음베야 지역 개척

탄자니아 지부는 주로 모로고로에서 사역해오다 2022년 9월부터 음베야 지역을 개척하여 사역의 지경을 넓혔다. 한국인 사역자와 현지 동역자들이 계속 더해지는 음베야 지역을 필두로 앞으로 스와힐리어권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제 2회 탄자니아 사역자 수양회

7월 11일(화)부터 7월 13일(목)까지 2박 3일간 탄자니아 모로고로 아마빌리스 센터에서 선교사 12명(선교사 자녀 3명 포함)과 본부 사역자 2명이 함께 모여 사역자 수양회가 진행되었다. 말라위 정탐 사역 보고회와 더불어 탄자니아 지부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프리카 개척을 위한 말라위 정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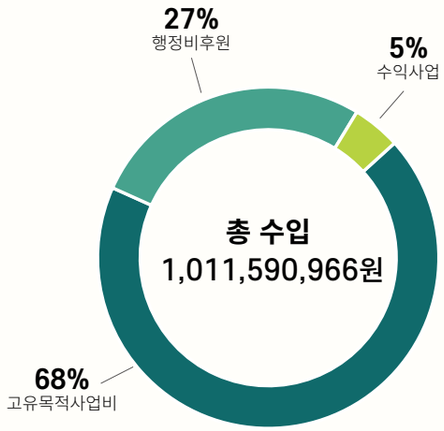
탄자니아 지부 4명과 본부의 2명이 함께하는 정탐팀이 동아프리카 개척을 위한 말라위 정탐으로 2023년7월 4일(화)에서 7월 9일(일)까지 릴롱궤, 마칸디, 블랜타이어, 음콤베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번 말라위 정탐을 통해 앞으로 스와힐리어권을 침투하고 확장해 나가는 여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22년 재정보고 (기간: 2022.6.1~12.31)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선교회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재단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위드 회계에서 분리되어 2022년 6월 1일부터 계상된 재정보고입니다. 내부 회계 전문가 감사를 통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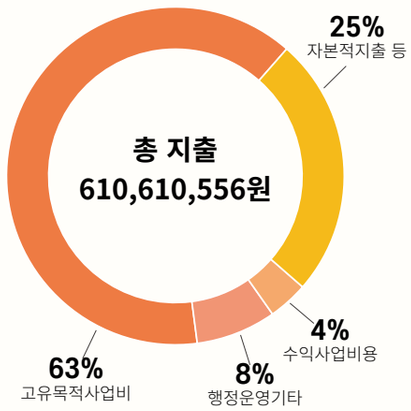
사업 수입

구분	금액	비율
고유목적사업	692,402,933	68
수익사업	46,200,000	5
행정비후원	272,988,033	27
계	1,011,590,966	100



사업 지출

구분		금액(원)	세부내용	비율
고유목적사업	선교사 활동비	295,199,293		48
	선교사 관리비	6,267,943	선교사 멤버 케어, 선교사 보험	1
	선교사 자녀 후원비	5,762,500		1
	해외선교사업비	16,065,400	해외장학멘토링, 선교사 지정사업	3
	교육사업비	18,767,700	WCS	3
	홍보출판사업비	5,705,430	기관지(풍성해) 발간비, 동행 제작비 등	1
	미션홈관리비	40,165,670	인테리어 공사,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6
수익사업	임대사업비	23,368,430	임대료 등	4
행정운영비 및 기타		46,897,467	인건비 및 본부 행정 운영비	8
자본적지출		152,410,723	(토지·건물 취득, 차량 운반구 등)	25
계		610,610,556		100



구분		금액(원)
다음년도 사업 준비비	차기이월액	400,980,410
계		400,980,410

오병이어선교회 후원자 (기준: 2022.7.1~2023.6.30)

GIVE LOVE

개인 후원 ▶

강경,강경자,강미하,강미희,강민자,강부원,강석화,강성경,강영란,강영희,강오순,강옥자,강유선,강지선,고명상,고성남,고성민,고성철,고성혁(음정),고수희,고영미,고유건,고유리,고윤영,고은숙,고인경,고태영(김영식),고하늘,고한나,곽계순,곽미란,구교형,권미령,권선아,권숙희,권영대,권오선,권정민(최예진),그중에제일은사랑이라,기드온,길미영,김강철(임나연),김경옥,김경자,김경희,김광현,김구환,김금숙,김금자,김기솔,김기웅,김길례,김나경,김대중,김동찬,김두현,김명화,김명희,김미경,김미란,김미순,김미자,김민수,김민정,김민지,김병준,김병학,김상미,김상준,김선미,김성열,김세원,김세훈,김소연,김수경,김수연,김수영,김수정A,김수정B,김수진,김수현,김수희,김숙자,김순아,김슬기,김승영(신은주),김승원,김시기,김신우(임희진),김아름,김애경,김영신,김예손,김예슬,김옥경,김옥태,김원희,김유희,김윤상,김윤섭,김윤실,김윤아,김윤정,김윤주,김윤희,김은숙,김은영,김은화,김이수,김이화,김인숙,김인원,김인정,김재임,김정근,김정명,김정숙,김정식(박옥주),김정효,김정희,김종고,김종길,김준,김중한,김지명,김지선,김지은,김지인,김지혜A,김지혜B,김지환,김진영,김진우,김진홍,김진희,김창식,김창준,김철하,김추이(홍유),김태운,김태훈,김판용,김학선,김한나A,김한나B,김해숙,김향곤,김현선,김현숙,김현이,김형기(정고은),김혜숙,김혜영,김혜정,김호정,김홍선,김효선,김훈,김희숙,나세연,나충근,나향,남상욱,남은자,노수희,노숙희,노아름,노주원,노태성,두재영,류은영,류정숙,문경하,문능숙,문세영,문양임,박건휘,박경미,박경희,박덕유,박명희,박범준,박병기,박상민,박상엽,박선미,박소영,박수경,박수진,박애라,박양희,박연진,박영준,박영희,박용식,박용자,박윤옥,박장수,박재상,박재일,박정미,박정숙,박종옥,박준수,박준희,박찬우,박한종,박현미,박현정,박현희,박혜나,박효봉(이경수),배수민,배영남,배영선,백지현,백현지,변현희,복혜진,봉명준,서경순,서동주,서동훈,서명구,서명우,서미경,서연경,서정숙,서혜남,서효진,석수연,성은희,성현숙,손병운,손수자,손지원,송경옥,송경은,송기원,송미란,송병민,송선애,송성아,송성은,송순복,송연식,송인혜,송임순,송정옥,송주훈,송지연,송지현,송진숙,송진혁,송호석,신경순,신기선,신민서,신민선,신상수,신준휘,신현숙,심재원,안금자,안나진,안미라,안미진,안민자,안신영,안영호,안은경,안자헌,안정란,안정미,안정민,안정애,안정진(조성희),안치훈,양동웅,양민정,양은주(최정호),양종수,엄광훈,엄성식,에스더,연대성,오경,오명순,오명희,오선민,오숙진,오영훈,오은주,오정현,오현,우웅서,우지성,원용일,유감송,유명숙,유성희,유수미,유수진,유영미,유영선,유예지,유이든,유정흥,유준열,유지선,유진덕,유현선,육다은,육도현,육지은,윤대한,윤성미,윤소연,윤영선,윤정일,윤정현,윤주길,윤필,이경,이경아,이경애,이경자,이경환,이광섭,이광희,이규호,이금주,이기완,이기호,이덕규,이덕호,이동숙,이라희,이미경,이미숙,이미영,이보라,이상아,이상원,이성수,이세연,이소현,이수현,이수희,이순자,이승복,이승철,이승훈,이승희,이영남,이영미,이영민,이영옥,이영희,이용규,이용숙,이원연,이원진,이유리,이유선,이윤경,이윤재,이윤주,이은경,이은미,이은아,이인숙,이재성,이정수,이정화,이정희,이존수,이종미,이종숙,이종한,이지영,이지윤,이지혜,이창수,이채은,이천호,이철봉,이필근,이한길,이향연,이현수,이현자,이현정,이현주,이형구,이혜리,이혜민,이혜옥,이혜진,임길순,임미영,임순자,임승재,임양임,임영숙,임은경,임은영,임재민,임재훈,임진묵,임철수,임해경,장만수,장민지,장성민,장성헌,장수남,장연화,장옥자,장준호,장지혜,장철순,장충만,장한우,장혜미,재민(지혜),전상봉,전선화,전유자,전은실,전정애,전진실,전혜숙,전희숙,정걸진,정광순,정다영,정말심,정명문,정미경,정성환,정신애,정아림,정옥경,정요셉,정은경,정은숙,정은주,정인숙,정인영,정재균,정재은,정택순,정희순,조경숙,조귀호,조미영,조민승,조봉희,조성수,조세주,조영선,조영옥,조예빈,조은경,조준형,조창범,조하나,조한나,조향미,주미련,주범순,주사랑,주지은,지영애,지혜영,진민정,차명선,차상희,차영빈,채성숙,채춘석,천명길,최갈렙,최기숙,최명국,최민숙,최병수,최석봉,최석현,최선정,최성현(이옥),최숙희,최연희,최영상,최영숙,최영태,최예영,최옥선,최이안,최일문,최자영,최정자,최지수,최지영,최진철,최충근,최취종,최현미,최혜원,최혜정,최호림,표명희,하미정,하태경,하태균,한경열,한경주,한경환,한기수,한봉원,한상희,한선보,한세희,한수희,한은경,한은택,한지예,한현열,함보미,허건영,허계영,허옥순,허윤영,허은영,허정화,현석진,홍수정,홍승진,홍예문,홍은지,홍주화(김인원),홍창윤,황미숙,황미향,황보진향,황봉남,황상미,황영숙,황익곤,황장선,황정숙,황진희,황혜경,무명 (555)

기관·단체 후원 ▶

• 가나안교회,갈릴리교회,개봉중앙교회,고수교회,광진교회,남서울은혜교회,늘사랑교회,단비교회,대구감리교회,대한성결교회,대현교회,더불어함께교회,동산교회,동신교회,로뎀나무교회,목자교회,부르심교회,분당우리교회,사랑의교회,삶이기쁜교회,상해은혜교회,새길감리교회,서초동교회,서현교회,선일선교회,세계로교회,수영로교회,수원제일선교회,시흥동산교회,아름다운교회,열방교회,영동교회,영락교회,영흥교회,예섬교회,예수길교회,예수선교회,예장기쁜교회,예장합신교회,용두동교회,월송감리교회,율전중앙교회,은성교회,은진교회,은혜나눔교회,의정부중앙감리교회,이레교회,전인교회,전주동현교회,중원경교회,참빛교회,참행복한교회,천안갈릴리교회,천안한빛감리교회,청양교회,청운교회,초량교회,팔복교회,평촌교회,포항새벽이슬교회,포항성결교회,푸른서현교회,하늘사랑교회,해오름교회(64)

• 경기영양사신우회,광주전남지부,더리치,아시안미션,에이씨앤드,예뜰순복음,이엠데이타,㈜선진엔텍,㈜선진테크,㈜수양에프앤지,주식산업,한빛약국,허선리앤헤어(13)

물품 후원 ▶

• 기관·단체: (사)부산의료선교회,(주)엘엔케이로직코리아,LG전자(업무혁신팀),경희대열린캠퍼스교회,나비드키친웨어(주),이브자리,씨엠코리아(7)

• 개인: 김대형,김동현(김진희),김송희,김신우(임희진),김재철,김철재(양일선),남은자,박성수,박춘응,백장미,송병민(홍주화),신연숙,신영자,유수미,유애순,이덕호,이선이,이영남,이영수,이정수,이지영,이혜리,정인숙,최갈렙(김수아),최선정,최성현(이옥),최원영,허계영,허정화,홍예문,황상미,황혜경,황혜옥(33)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 후원 안내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귀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선교회 모든 선교사는 각각 선교사별 신한은행 전용 후원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주는'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 재단' 예금주 이름이 앞부분만 나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나다 순)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0	본부 사역자	신한	100-035-952967	14	양희선 고은경	신한	100-036-121280
1	강유숩 남은자	신한	100-036-120680	15	유수진	신한	100-036-121228
2	고하늘	신한	100-036-121146	16	육지은	신한	100-036-121363
3	길미정	신한	100-036-120520	17	윤향숙	신한	100-036-120553
4	김동현 김진희	신한	100-036-121114	18	이도경	신한	100-036-121153
5	김동희	신한	100-036-121299	19	이영옥	신한	100-036-121242
6	김수정	신한	100-036-121185	20	이용숙	신한	100-036-121203
7	김은혜	신한	100-036-120464	21	임재민 고주영	신한	100-036-121250
8	김인송 고윤희	신한	100-036-121178	22	장준호 조시경	신한	100-036-120635
9	김창식 김선미	신한	100-036-120756	23	천요한 유한나	신한	100-036-121235
10	김혜정	신한	100-036-120724	24	최갈렙 김수아	신한	100-036-121330
11	박경희	신한	100-036-120642	25	주은혜	신한	100-036-120578
12	송성아	신한	100-036-121324	26	(캄) 김선미	신한	100-036-120763
13	안정미	신한	100-036-121371	27	한재옥	신한	100-036-120650

오병이어 함께하기

함께해 1 | 선교사 / MK 후원

오병이어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를 후원합니다. 전용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02-322-4630 선교사관리부

함께해 2 | 해외장학 멘토링

가난으로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꿈 찾기 멘토링을 선물해주세요. ＊1달란트 3만원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멘토링000

함께해 3 | 사역자(현지인 사역자 생계비) 후원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 후원은 선교사 한 가정의 파송 효과입니다.
현지 사역자 사례비 20만원 /월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사역자000

함께해 4 | 오병이어 사역후원

YW 지역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우선 긴급한 필요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00-035-952967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함께해 5 | 오병이어하우스

오병이어 훈련 센터 및 안식관 마련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세요.
공동체 영성훈련, 선교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써 가족 신앙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신한은행 100-036-02719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오병이어선교회

지	금	여	기
우	리	함	께
나	누	어	요

(재)오병이어선교재단 후원 | 신한 100-035-952967

홈페이지
www.yello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

유튜브
https://url.kr/2uflmb

오병이어선교회
Food & Nutrition for Good News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로
「오병이어선교회」와 「위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연합합니다.